

“올 차례상 매출 예년 설 대비 반토막”

설 앞뒤 7일 열린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모습 평소보다 도민과 관광객 발걸이 이어져 시장 활기 제주용품 매대 ‘복적’... 의류 코너 등 부진 계속

“설 명절 대목이라 평소보다 많은 손님이 오일시장을 찾아주셨는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 이전 명절때처럼 물건을 구입하지 않네요.”

7일 설날 전 마지막 장이 열린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은 장을 보러 나온 도민과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이날 방문객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한 손에는 장바구니를 들어 좋은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진열된 상품을 세심히 살피고 있었다. 상인들은 가지고 나온 상품을 팔기 위해 양손으로 진열된 물건을 들고 홍보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오일시장 내에서는 “음식을 취식하시는 분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강조하는 안내방송이 곳곳에서 흘러나왔다. 이 때문에 핫도그, 호빵 등 요깃거리를 구매할 방문객들은 많은 인파가 몰려 복잡해진 시장을 빠져나온 뒤 인근 공터에서 먹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제주시 민속오일시장내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린 곳은 제주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과일코너와 야채코너 그리고 생선판매대였다.

오일시장에서 수년간 야채를 판매하고 있다는 A씨는 “지난해 추석 때보다 이번에 손님이 더 많이 온 것

같다”며 “(손님들이) 많이 와서 좋는데, 경기가 어려운 탓인지 예전만큼 물건을 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생선가게 상인 B씨는 “설 명절을 맞아 제주용품을 사려는 손님들이 생선코너에 몰리고 있다”면서 “하지만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가족모임이 어려워지고 차례상

차리기 역시 간소화되면서 육뚬 등 생선 수량이 지난해보다 절반가량 줄었다”고 아쉬워했다.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상인회에 따르면 이날 하루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을 찾은 방문객은 1만5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하루 평균 5만명에 달하는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방문객 수의 1/3 수준으로, 여전히 전통시장이 경기 침체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철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상인회장은 “명절을 앞둔 제주용품을 구

입하려는 방문객들의 발걸이 이어지면서 과일코너와 생선코너 등에 많은 인파가 몰렸지만 의류 등 기타 코너는 여전히 매출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다육이 최근 지역내 들어선 중·대형 마트로 인해 제주지역 전통시장이 전체적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날씨가 풀리면 오일시장을 찾는 방문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인회에서는 지속해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설을 앞둔 7일 열린 제주시 오일시장에는 많은 도민들이 찾아 북새통을 이뤘지만 이전과 달리 씩씩이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강희만기자

명품어종인 ‘옥뚬’인줄 알았는데... 식약처, 저가의 가짜 옥뚬 온라인 판매 적발

옥두어·남방옥뚬 많아 “옥안으로는 구별 어려워”

온라인을 통해 값싼 옥두어가 옥뚬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옥뚬 27개 제품을 유전자 분석법으로 검사한 결과, 3건(옥두어 2, 남방옥뚬 1)이 가짜로 판정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옥뚬을 구매할 때 옥뚬의 주요 특징을 확인하고 구매해 줄 것을 7일 당부했다.

식약처의 이번 검사는 옥뚬을 굵거나 굵거리 재료로 사용하면 옥뚬의 주요 특징이 사라진다는 점을 고려, 저가의 옥두어를 고가의 옥뚬으로 속여서 판매한다는 소비자 정보에 따라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관리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가짜 옥뚬을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옥뚬과 옥두어, 남방옥뚬은 농어목 옥뚬과에 속한 어류로서 형태가 비슷해 옥안으로 구별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들 어종의 주요 특징인 ‘눈 밑 반점’, ‘몸 중앙에 불규칙한 노란색 세로띠’, ‘지느러미 띠 형태와 색깔’을 알고 있다면 진짜 옥뚬을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짜 옥뚬을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은범기자

오픈 나홀만에... 설 앞두고 닥친 ‘화마’

어제 전자제품매장 화재 건물 2층·제품창고 전소

“오픈한지 나홀만에 불이 났어요. 너무 허망합니다.”

7일 제주시 오라2동 소재 2층짜리 전자제품 매장에는 매캐한 냄새가 가득 들어차 있었다. 현장에는 오픈을 축하하는 화환들이 불에 그을린 채 널브러져 있고, 화마를 피해 밖으로 꺼내진 침팬에는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라는 당찬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 매장은 지난 3일 문을 연 곳이다.

매장 옆에 전자제품을 보관하는 창고는 상태가 더 심각했다. 이곳에는 에어컨 실내·외기와 밥솥 등 여러 가지 가전제품이 보관됐는데, 건질 것 하나 없이 잿더미만 눈에 보이는 상황이었다.

불은 이날 새벽 3시15분에 발생했다. 순식간에 타오른 불길은 서비스 센터 역할을 하던 건물 2층과 전자제품을 보관하는 창고를 전소시키고, 약 2시간 뒤인 오전 5시9분에야 진화가 완료됐다.

현장에 만난 매장 관계자는 “매장에 설치된 화재경보기가 작동하면서 불이 난 사실을 알게 됐다”며 “곧바로 달려갔지만 강력한 불길로 인해



떨리서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원래 매장은 첨단 과학기술단지에 위치해 있었지만, 토지 일부를 수용 당해 지난해 8월부터 이 곳에서 재오픈을 준비했다”며 “반년 넘는 준비 끝에 신구간, 설 명절을 맞은 지난 3일 문을 열었지만, 화재로 인해 보유 중인 제품 대부분이 불에 타버렸다. 재산피해는 1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큰 기대를 갖고 매장을 열었는데 허망할 따름”이라며 “매장에 팔린 식구가 50여명이다. 어떻게 해서든 재건에 나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제주소방서는 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화재 현장에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액을 조사할 예정이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 오늘부터 음식점 등 영업제한 1시간 연장... 업종별 ‘희비’

“설 대목 그나마 다행” vs “왜 우린...”

“1시간이 어디예요. 속 시원한 조치는 아니지만 그나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8일부터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비수도권의 음식점,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을 1시간 늦춘 오후 10시로 연장하면서 상인들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정부 발표와 발맞춰 제주도 역시 식당·카페 등 매장 내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 1시간 연장키로 했다. 영업이 1시간 연

장되는 업종은 음식점과 카페를 비롯해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유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6종이다. 기간은 8일 오전 0시부터 14일 까지다.

도방역당국은 현행 거리두기 2단계 규정 중 오후 9시 운영제한 업종의 운영 시간만 늦춰진 것일 뿐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된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정부와 제주도 발표대로 연장 대상에 해당하는 업종에서는 설을 앞


뒤 조금이나마 안도하고 있는 반면 여전히 영업이 제한된 유흥주점 업종에서는 불만을 표하고 있다.

7일 제주시청 인근에서 포장마차 형식의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A(37)씨는 이번 영업시간 연장 발표에 작은 기대를 품고 있었다. 가게 특성상 2차로 오는 손님이 많았는데, 오후 9시까지로 영업이 제한했을 당시에는 하루에 세 테이블 받기도 버거웠기 때문이다.

A씨는 “1차가 끝나면 오후 8시가

넘어버리기 때문에 간단한 안주를 파는 술집은 손님이 급격히 줄었다”며 “영업시간이 1시간 연장이 되면 예전 만큼은 아니지만 확실히 손님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새삼 1시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볼게 됐다”고 말했다.

반대로 여전히 영업금지 조치를 받고 있는 유흥업소는 울상을 짓고 있다. 서귀포시에서 단란주점을 하고 있는 B(56)씨는 “장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피해가 막심한데, 언론에서는 일부 유흥업소의 불법영업 사례만 부각시킨다”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서 정부의 조치에 동조하고 있지만, 1년 중 가장 큰 대목인 설 명절에도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쉽다”고 토로했다. 송은범기자



2월 15일~17일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 실시!

02, 070, 15** 등 낫선 전화도 꼭 받고!

제주의 미래를 위해 **반대**를 선택합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제주지역본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제주본부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

환경파괴! 공군기지 활용! 공동체 붕괴! 제2공항 반대!